

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

2025학년도 캡스톤디자인 교내 경진대회

:투스프렌즈 팀 ‘최우수상’ 수상

2025학년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 경진대회가 11월 27일(목) 컨버전스홀 209호에서 개최되었다. 치위생학과 교육치위생학(종합설계) 과목의 ‘투스프렌즈’ 팀은 “뇌졸중 환자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교육 매체 개발” 프로젝트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.

이번 대회에서는 치위생학과뿐 아니라 임상병리학과, 의공학과, 디자인예술학부 등 여러 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폭 넓은 아이디어를 선보였다. 또한 “광고와 광고인”을 주제로 한 특강과 경품 추첨 등 부대행사도 진행되며 활기찬 분위기를 더했다. 수상 학생들은 “조별 활동의 의미를 인정받은 뜻깊은 경험이었다”, “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모든 팀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(다음)



이번 수상은 뇌졸중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위생학적 전문지식과 사용자 중심 설계가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. 더불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적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.

또한 이번 대회는 총 23개 팀이 본선에서 경쟁을 펼친 가운데, 최종 11개의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. 그 중 치위생학과 교육치위생학(종합설계)에서 본선에 출전한 두 팀이 모두 최우수상에 선정되며 학과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.

